

## ■ 대구 교차로 2009년 8월 24일

###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만평주민도서관'>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작은 도서관에서 일구는 만평의 희망'이라는 근사한 의미를 지닌 '만평주민도서관'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도서관, 배움과 소통의 희망을 전하는 도서관이다. 지난 18일 개소식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 만평주민도서관과 만평의 희망을 쏘아올린 이들을 소개한다.

#### 만평의 희망을 쏘아올리다

만평주민도서관은 사립공공도서관 '더불어 숲'에서 관장을 역임한 정용태 관장과 쪽방상담소 윤승걸 소장을 주축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도서관이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해 사립공공도서관으로 훌쩍 성장한 '더불어 숲'에서 작은도서관의 힘과 희망을 직접 일구고 확인한 정용태 관장은 더 많은 이들이 작은 도서관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쪽방상담소 윤승걸 소장을 만났다.

“윤승걸 소장도 쪽방 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매개이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도서관'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 도서관 설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죠. '더불어 숲'은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서관입니다. 열람실 청소부터 책 정리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전담하는데 이들이 곧 도서관 주 이용자이기도 하지요. 윤승걸 소장과의 생각이 맞아 맞대고 구상한 만평주민도서관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 관장과 윤 소장의 바람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만평주민도서관이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발견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계를 회복하고 꿈을 되찾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 읽는 곳이라는 경직된 틀을 깨는데 주력했다. 정 관장은 “모든 마을에는 산책을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주민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은 책과 벗하며 뛰어놀고, 부모들은 도란도란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평도서관은 서가 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천 여 권이 넘는 책이 구비된 서가 뿐 아니라 찻집과 나눔가게, 헬스시설까지 갖추었다. 도서관에 헬스시설이 왜 필요할까, 사뭇 궁금해 하는 이들도 있을 법하다. 헬스시설과 샤워장은 쪽방상담소 윤 소장의 아이디어다. 책을 읽을 여유가 부족한 쪽방 이용자들이 잠시나마 들러서 쉴 수 있고 부담 없이 책 한권을 집어 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다. 그러다보면 도서관이라는 부담 없이 더 자주 편안하게 이곳을 찾고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유가 없을 뿐 쪽방아저씨들도 문화, 예술, 철학 관심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쉬면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만평주민도서관에서는 나눔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나눔가게는 의류, 신발, 도서 등을 기증받아 판매 교환하는 재활용품 가게이다. "현명한 소비와 소통을 위한 첫걸음으로 나눔가게를 마련했다"는 정 관장은 "2주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눔 장터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함께 재활용품 활용과 나눔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만평주민도서관에서 만평의 희망을 일구다

작은도서관이자 문화공간, 동네 사랑방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만평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아주 다양하다. 이제 막 한글을 깨친 어린아이부터 무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은 동네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거리낌 없이 이곳을 찾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나누고 이해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쪽방상담소 윤 소장은 “도서관은 쪽방거주민과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관이 쪽방이용자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회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만평도서관 희망 릴레이

만평주민도서관은 든든한 스폰서를 두고 있다. 서고에 비치된 2천여 권의 도서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개인후원자들을 비롯해 대구도시공사, 웅진씽크빅, 더불어 숲(사립공공도서관), 생명가게(재활용가게)에서 스폰서를 자청, 후원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만평도서관 개관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은 지역주민들과 후원인, 자원활동가, 도서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도서 기증도 꾸준히 받을 계획이다. 정 관장은 “도서관은 개관도 어렵지만, 새 책을 끊임없이 채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도서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이용자들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TIP.** 만평도서관의 서고에 구비된 도서는 다양하다. 어린이 도서, 소설, 실용서까지 없는 게 없다. 도서관 이용은 회원가입으로 누구나 도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 운영은 일요일, 국경일을 제외한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회원가입으로 누구나 도서 열람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56-0468

하정민 기자\_hjm@atjob.co.kr